「梁山伯傳」攷

丁　奎　福
〈高麗大 文科大學 敎授·國文學〉

《目　次》

序　言
Ⅰ. 中國의 梁祝說話
Ⅱ. 梁山伯傳과 中國의 梁祝說話
Ⅲ. 梁山伯傳과 巫歌
結　語

序　言

「梁山伯傳」은 中國의 梁祝說話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적으로 小說化된 作品을 지칭한다. 즉 「梁山伯傳」은 同門受學으로 친구가 된 男主人公 梁山伯과 女主人公 祝英臺가 서로 百年佳約을 맺었음에도 不拘하고 祝英臺가 他家에 出嫁함으로써 梁山伯은 失戀得病하여 드디어 죽게 되고 이로 因하여 祝英臺는 新行길에 梁山伯의 무덤으로 뛰어들어 함께 죽게 된다는 梁祝說話의 內容으로서 이 애틋한 사랑의 悲劇性은 애초에 中國에서 唐代에 발생하여 宋·元·明·淸代를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傳播되어, 마치 한국의 春香傳만큼 전파되어 많은 異本을 産出케 하였다는 것은 바로 梁祝說話가 지닌 그 비극성에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梁祝說話의 비극성은 한국에도 傳來하여 「梁山伯傳」을 産

出케 하였을 뿐 아니라, 「梁山伯傳」은 다시 우리나라 巫歌에도 영향을 주어 梁祝巫歌를 발생케 하였고, 또한 「梁山伯傳」類의 비극적인 事件을 배경으로 한 小說을 낳게 하였다는데 무엇보다도 梁祝說話의 비극성의 중요성이 있다고 본다.

「梁山伯傳」에 대한 硏究는 天台山人이 일찍이 「梁山伯傳」의 根源說話가 「情史」 및 「寧波志」에 있음을 밝히고 아울러 「祝英臺雜劇」(元), 「梁山伯寶卷」(明), 「訪友記」(淸)등의 作品化 과정까지 언급한 바 있다.[1] 이후 朴晟義교수도 같은 內容을 풀이하고 있다.[2] 그러나 李明九교수는 위와 같은 「梁山伯傳」에 대해 前揭한 天台山人의 說을 否定하고 대신 「喩世明言」 所載 「李秀卿義結黃貞女」로 代置시켜 놓았다.[3]

위와 같이 天台山人은 「梁山伯傳」의 根源說話를 최초로 「情史」 및 「寧波志」로 列擧하였는데, 實은 「情史」는 「古今情史」의 錯誤로 보며[4] 거기에 결들인 「寧波志」는 現存치 않는데, 天台山人이 이를 列擧한 理由는 所謂 梁祝說話가 「古今情史」 末尾에 「見寧波志」[5]가 出現함에 있다고 본다. 또한 天台山人이 梁祝說話의 中國的 傳播過程에서 列擧한 明代의 「梁山伯寶卷」 및 淸代의 「訪方記」에 있어서도 實은 「梁山伯寶卷」은 淸末에 등장한 民間戱의 一種이며, 「訪友記」는 明代에 出刊된 傳奇小話의 一種인 「訪友記」를 지칭한다.[6] 그러므로 天台山人에 의해 이루어진 「梁

1) 天台山人 『朝鮮小說史』(增補版) p. 221
2) 朴晟義 『韓國古代小說論과 史』<p. 437>
3) 李明九 「李朝小說의 比較文學的硏究」(『大東文化硏究』(5) 成均館大學 大東文化硏究院刊 1971> p. 20
4) 『筆記小說大觀』〈臺灣新興書局刊〉 p. 6547
5) 上 同
6) 路工 『梁祝故事說唱集』〈上海 出版公司上書 1955. 4〉 pp. 12~13

山伯傳」의 根源說話에 대한 文獻的 錯誤는 이후 出刊된 한국 小說史論에 그대로 계속되어 왔다.

여기에 「梁山伯傳」의 문제를 提起한 것은 中國의 梁祝說話가 어떤 形態로 流播되었으며, 또한 한국의 「梁山伯傳」은 한국에서 어떻게 分布되었는가를 살피는데 있다. 말하자면 한국의 「梁山伯傳」이 中國의 梁祝說話를 어떻게 受容해서 한국에서 후대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Ⅰ. 中國의 梁祝說話

中國에서 梁祝說話가 成立된 시기는 대체로 唐代로 잡고 있다. 宋代人 張津의 「乾道四明圖經」에

> 義婦家 即梁山伯祝英臺同葬之地也 在縣西十里接待院之後 有廟存焉 舊記謂二人少嘗學 比及三年 而山伯初知英臺之爲女也 其機實如此 按十道四蕃志玄 義婦祝英臺與梁山伯同冢即其事也[7]

란 記錄이 보이는데, 이로 보면 唐代 中宗時 梁載言 撰인 「十道四蕃志」에 이미 梁祝說話가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十道四蕃志」는 지금 逸書가 되어 그 事實 與否를 확인할 길이 없다.

그리고 같은 唐代時人 張讀의 所撰인 「宣室志」엔 비교적 구체적인 說話가 등재되어 있다.

---

7) 上書 p. 10

英臺 上虞氏女 僞爲男裝游學 與會稽梁山伯者 同肄業 山伯字處仁 祝先歸 二年山伯訪之 方知其爲女子 悵然有所失 告其父母求聘 而祝已字馬氏子矣 山伯後爲鄞令病死 葬鄞城西祝適馬氏 舟過墓所 風濤不能進 問知有山伯墓 祝登號慟 地忽自裂陷 祝氏遂竝埋焉 晋丞相謝安 奏表其墓曰 義婦冢[8]

이와 類似한 梁祝說話가 「古今情史」에도 挿入되어 있다.

梁山伯祝英臺 皆東晋人 梁家會稽祝家上虞 嘗同學 祝先歸 梁後過上虞尋訪之 始知爲女 歸乃告父母 欲娶之 而祝已許馬氏子矣 梁悵然若有所失 後三年 梁爲鄞令病且死 遺言葬清道山下 又明年 祝適馬氏 過其處風濤大作 舟不能進 祝乃造梁塚失聲哀慟 地忽裂 祝投而死 馬氏聞其事于朝 丞相謝安請封 爲義婦和帝時梁復顯靈異効勞 封爲義忠 有司立廟于鄞云 見寧波志[9]

그러나 위의 「古今情史」는 비록 清代에 이루어졌지만, 위의 例文에서와 같이 「見寧波志」가 보이므로 이는 「寧波志」의 것을 그대로 再錄한 것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다가 宋代에 이르러 위의 짤막한 梁祝說話에다가 化蝶說話가 덧붙혀져 내려오다가 元代에 이르러 白仁甫의 「祝英臺死嫁梁山伯」 雜劇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不幸하게도 逸書가 되었다.[10]

다시 明代에 이르러 梁祝說話에다가 還魂說話가 덧붙혀지게 되었다.

---

8) 上同. 그러나 현재 臺灣 新興書局에서 出刊된 張讀의 「宣室志」에는 이 梁祝說話가 전연 보이지 않는다.

9) 『筆記小說大觀』 四編〈臺灣 新興書局刊〉

10) 著雜劇十六種 金有二種……「唐明皇秋夜梧桐雨」「斐小俊牆頭馬上」 其中以梧桐雨爲最佳 <鄭綏寧 『中國戲劇史』(臺灣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刊) p. 54>

이 梁祝說話를 바탕으로 하여 明代에 이루어진 傳奇小說은 실제로 朱從龍의 撰이란 것을 알 뿐, 現存치 않는 「牧丹記」를 비롯하여 亦是 現存치 않지만 王紫濤의 撰인 「兩蝶詩」, 아울러 撰者도 전연 알 수 없는 「同窗記」, 「還魂記」, 「訪友記」등도 全編이 傳하지 않고 部分的으로 여러 文獻에 散在해 있기 때문에 이들의 全貌를 알 수 없음이 遺憾이다.

그러나 明代作品으로 비교적 상세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은 馮夢龍의 「古今小說」에 傳하는 梁祝說話가 있다.

又有個女子 叫做祝英臺 常州義興人氏 自小通書好學 聞餘杭文風最盛欲往游學 其哥嫂止之曰 古者男女七歲不同席不共食 你今一十六歲却出外游學 男女不分 豈不笑話 英臺道 奴家自有良策 乃裹巾束帶 扮作男子模樣 走到哥嫂面前 哥嫂亦不能辨認 英臺臨行時 正是夏初天氣 榴花盛開 乃手摘一枝 揷子花臺之上 對天禱告道 奴家祝英臺出外游學 若完名全節 此枝生根長葉 年年花發 若有肖之事 玷辱門風 此枝枯萎 禱畢出門 自稱祝九舍人 遇個朋友 是個蘇州人氏叫做梁山伯 與他同館讀書 甚相愛重 結爲兄弟 日則同食 夜則同臥 如此三年 英臺衣不解帶 山伯屢次疑惑盤問 都被英臺將言語支吾過了 讀了三年書 學問成就 相別回家 約梁山伯二個月內 可來見訪 英臺歸時 仍是初夏 那花臺上所揷榴枝 花葉並茂 哥嫂信了同鄉三十里外 有個安樂村 那村中有個馬氏 大富之家 聞得祝九娘賢慧尋媒 與他哥哥議親 哥哥一口許下納綵問名都過了 約定來年二月娶親 原來英臺有心於山伯要等他來訪時 露其機括 誰知山伯有事 稽遲在家英臺只恐哥嫂疑心 不敢推阻 山伯直到十月 方纔動身 過了六個月了 到得祝家庄 問祝九金人時 庄客說道 本庄只有祝九娘 並沒有祝九舍人 山伯心疑 傳了名刺進去 只見丫鬟出來 請梁兄到中堂相見 山伯走進中堂 那祝英臺紅粧翠袖 別是一般粧束了 山伯大驚 方知假扮男子 自愧愚魯不能辨識 寒溫已罷使談及婚姻之事 英臺將哥嫂做主 已許馬氏爲辭 山伯自

恨來遲 悵悔不迭 分別回去遂成相思之病 奄奄不起 至歲底身亡 囑付父母 可葬我于安樂村路口 父母依信葬之 明年英臺出嫁馬家 行至安樂村路口 忽然狂風四起 天昏地暗 與人都不能行 英臺眼觀看 但見梁山伯飄然而來梁說道 吾爲思賢妹 一病而亡 今葬于此地 賢妹不忘舊誼 可出轎一顧 英臺果然走出轎來 忽然一聲响亮 地下裂開丈餘 英臺從裂中跳下 衆人扯其衣服 如蟬脫一般 其衣片片而來 頃刻天清地明 那地裂處 只如一線之細 歇轎處 正是梁山伯墳墓 乃知生爲兄弟 死作夫妻 再看那飛的不服碎片變成兩般花蝴蝶 傳說是二人精靈所化 紅者爲梁山伯 黑者爲祝英臺 其種到處有之 至今猶呼其名爲梁山伯祝英臺也 後人有 詩贊云

三載書幃共起眠 活姻緣作死姻緣
非關山伯無分曉 還是英臺志節堅[11]

위의 梁祝說話는 唐人小說을 典據하였다는 馮夢龍의 言及을 통하여 보면[12] 현존한 「十道四蕃志」와 「宣室志」 所載의 梁祝說話가 典據되어 改作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明淸代의 民歌로는 「羅江怨」 「梁山伯歌」 「梁山伯」등이 있고, 說唱形式을 비른 梁祝說話를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新編金蝴蝶傳」〈淸乾隆己丑年 江蘇蘇州 民間藝人抄本〉

「新編東調大雙蝴蝶」〈淸 杏橋主人著 乾隆三十四年寫成 道光三年 文會堂 刻本〉

「柳蔭記」〈淸 四川桂馨堂刻本 有翻刻本〉

「新刻梁山伯祝英臺夫婦攻書還魂記」〈淸 河南刻本 上海 淵明書莊 文益書局 久益齋 太平洋印刷公司 海左書局等 石印本〉

---

11) 馮夢龍『古今小說』(下)〈臺灣世界書局刊〉 第二十卷 李秀卿義結黃貞女

12) 據唐人小說有個朴蘭女子……又有個女子叫做祝英臺(『古今小說』 第二十卷)

「新刊梁祝奇緣全部」〈清 浙江 溫修竹山房刻本〉

「新造山伯英臺全歌」〈清 廣東 潮州刻本〉

「山伯英臺遊十八地獄全歌」〈清 廣東 潮州 萬書堂刻本〉

「新刻祝英臺全本」〈清 光緒三十四年 平樂 唐仁義堂刻本〉

「祝英臺勸酒」〈清 宣統三年 浙江 寧波志鳳 英齋刻本〉

「全本梁山伯即係牡丹記南音」〈清 廣州 芹香閣刻本〉

「英臺回鄉」〈清 廣州 成文堂刻本〉

「白沙訪友」〈清 廣州 五桂堂 機器版〉

「山伯訪友」〈清 廣州 五桂堂 機器版〉

「梁婆求媳」〈清 廣州 五桂堂刻本〉

「英臺問覓」〈清 廣州 五桂堂刻本〉

「英臺拜月」〈清 廣州 以文堂 機器本〉

「新刻同窗梁山伯還魂重整姻緣傳」〈清 福州日新堂刻本〉

「最新梁山伯祝英臺新歌」〈清 南安 江湖客 西庭 禾火光 編 廈門 會文堂刻本〉

이들 外에 地方戲로 「山伯訪友」 「梁山伯祝英臺送友回文」 「梁山盃全本」 등이 있다.

그리고 清末에서 부터 1911年 사이에 出刊된 梁祝說話는 다음과 같다.

「梁山伯祝英臺新歌」〈渝城張金山刻本〉

「新刻柳蔭記」〈四川 成都刻本〉

「柳蔭記」〈四川 成都刻本〉

「高腔訪友記」〈四川 成都刻本〉

「新罵媒」〈四川 成都刻本 周敦文 著〉

「梁山伯祝英臺」〈上海 鉛印本〉

「新編梁山伯祝英臺灘簧」〈上海 仁和翔書莊 石印本〉

「祝英臺攻書」〈河南 韻文堂 石印本〉

「梁山伯訪友」〈河南 濟玉堂 石印本〉

「梁山伯祝英臺」〈河南 憲德堂 石印本〉

「梁山伯訪友」〈安徽 安慶 坤記書局 木刻本〉

「增廣梁山伯祝英臺新歌全傳」〈福建 廈門 會文堂 木刻本 1914〉

「梁山伯祝英臺節義全歌」〈廣東 潮州 自娛軒 鉛印本 1924〉

「梁山伯寶卷」〈上海 文益書局 石印本 1924〉

「最新英臺留學歌」〈臺灣 臺中 瑞成書局, 鉛印本 1933〉

「梁祝回陽結爲夫妻歌」〈臺灣 臺中 瑞成書局, 鉛印本 1933〉

「山伯想思老祖下凡賜金丹新歌」〈臺灣 臺北 周協隆書店 鉛印本 1936〉

「吳山訪友」〈福建 福州 聚新堂 鉛印本〉

위의 梁祝說話는 대체로 路工의 「梁祝故事說唱集」을 中心으로 엮었는데, 路工은 梁祝說話에 대하여 이는 民間文學에서 중요한 위치를 占하였다 하고, 아울러 한편의 우수한 叙事詩를 이루었다고 言及하고 있다.[13] 이로 보면 中國에서의 梁祝說話가 하나의 梁祝說話群을 形成한 것은 마치 한국에서 春香傳이 하나의 春香傳群을 形成하여 民族叙事詩의 위치를 占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다.

13) 路工『梁祝故事說唱集』p. 15

Ⅱ. 「梁山伯傳」과 中國의 梁祝說話

中國의 梁祝說話가 唐代에 形成하여 이후 宋·元·明·淸代를 걸쳐 現代에까지 전파되어 내려 왔다는 것은 前項에서 이미 言及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一連의 梁祝說話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 어떻게 한국에 傳來하였느냐에 대하여는 現存하는 문헌이 없어 이를 적확하게 밝힐 길이 없다. 다만 한국에는 唯一한 「梁山伯傳」이 있을 뿐, 그 텍스트는 京板本과 活字本 두 種類가 있지만, 이들 兩本의 內容은 一字一劃이 꼭 같아 현재로는 唯一한 텍스트가 있는 셈이다.

또한 한국의 「梁山伯傳」이 朝鮮時代에 出來한 古小說이란 것을 알 뿐 이것이 朝鮮朝 어느 시대에 形成되었느냐에 대하여는 적확하게 알 길이 없다. 다만 天台山人은 그의 『朝鮮小說史』[14]에서 편의상 英正祖 즉 朝鮮後期에다 이를 挿入시켜 놓은 것이 오늘날 通說로 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筆者는 梁山伯傳이 朝鮮朝 前期 혹은 後期에 成立되었다는 것을 확증시킬 만한 資料나 根據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筆者도 편의상 「梁山伯傳」이 英正朝에 形成되었다는 天台山人의 說을 그대로 通用하여 이 글을 展開해 나갈까 한다.

그러면 「梁山伯傳」은 中國의 많은 梁祝說話 중 어떤 것의 영향을 받고 이루어졌을까. 이에 대하여는 前揭한 바와 같이 天台山人은 「梁山伯傳」의 根源을 「情史」 및 「寧波志」에 두고 兩者의 出入 관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對比한 바 있다. 그러다가 近者에 李明九교수는 「情史」에

14) 天台山人 『朝鮮小說史』<p. 221>

담겨진 梁祝說話가 너무 간단한 記錄에 지나지 않는다고 前提하고, 「喩世明言」 所載 梁祝說話를 찾아내어 이들 兩者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나서, 梁山伯傳은 中國의 梁祝說話의 근거를 두고 이를 번안하여 이를 悲戀으로 끝맺지 않고, 두 主人公을 다시 回生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地上에서 사랑의 結實을 보게 하는 一種의 翻案作으로 結論짓고 있다.[15]

그러나 前揭한 바와 같이 中國에서도 梁祝說話는 唐代에 발생하여 그 후 宋·元·明·淸代에 계속해서 民間說話로 유파되어 내려온 것이니만큼 「梁山伯傳」도 이들과 多樣하게 比較됨으로써 그 受容관계가 비로소 어느 정도 明瞭하게 밝혀지리라고 본다. 말하자면 唐代에서 비롯하여 淸代中葉까지 유파된 中國의 梁祝說話는 오늘날 밝혀진 것만 하여도 무려 30餘種이나 되며, 또 이들 중 많은 것이 逸書가 되었으니 현재 형편으로는 「梁山伯傳」의 근원을 뚜렷하게 밝혀 놓기란 거의 不可能한 일이다.

다만, 여기서는 現存한 梁祝說話의 全貌를 지니고 있는 「宣室志」와 「古今情史」 所載 梁祝說話와 「古今小說」의 梁祝說話를 「梁山伯傳」과 比較함으로써 兩者의 異質性을 들어내어 「梁山伯傳」이 中國의 梁祝說話에서 어떻게 變貌되었는가를 살펴보는 데 限定하기로 한다.

그러면 「梁山伯傳」과 中國의 梁祝說話를 비교하기에 앞서, 于先 이들의 結構를 적어 보기로 하는데, 편의상 「梁山伯傳」은 23個項으로 나누어 적고, 다음 中國의 梁祝說話의 內容을 적어 놓기로 하자.

梁山伯傳

1. 大明 成化年間에 南陽의 梁현夫婦가 늦도록 一點血肉이 없다가 玉

15) 李明九 「李朝小說의 比較文學的 硏究」(「大東文化硏究」(5)> pp.20~22

皇上帝의 占指로 梁山伯을 낳는다.

2. 梁山伯은 奇骨이 非凡하여 10세에 雲香寺로 공부하러 간다.

3. 平江땅 추이도 一點肉血이 없다가 奇夢으로 양대(英臺)를 낳는다

4. 추양대(祝英臺)는 비록 女子의 몸이지만 立身揚名하기 위해 男裝하여 14세에 雲香寺로 공부하러간다.

5. 梁山伯과 추양대는 雲香寺에서 우연히 만나 結義兄弟가 된다.

6. 梁山伯은 추양대와 공부하면서도 그가 女態가 있음을 의심하여 처음은 所避의 方法, 나중에는 잠자는 추양대의 雪膚를 보고 비로소 女子인줄 확인한다.

7. 梁山伯은 추양대에게 사랑을 告白한다. 이때 추양대는 後日을 기약하고 雲香寺를 떠나 故鄕으로 돌아간다.

8. 梁山伯은 홀로 雲香寺에서 공부하다가 추양대를 만나기 위해 平江땅으로 떠난다.

9. 梁山伯이 平江에 이르렀을 때 추양대는 名望 있는 沈尙書의 아들 의랑과 定婚한 것을 듣고 失意에 빠진다.

10. 집에 돌아온 梁山伯은 相思病에 걸린다.

11. 梁尙書는 아들의 病을 걱정하여 추양대의 집을 찾았으나, 추양대는 沈의랑과 한창 결혼식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온다.

12. 梁山伯은 百藥이 無效하여 추양대에게 주는 편지를 쓰고, 死後 추양대의 新行길에 묻어 줄 것을 부탁하고 죽는다.

13. 梁山伯은 遺言대로 新行길 황님에 묻힌다.

14. 추양대는 新行길 황님에 이르러 梁山伯의 편지를 읽고 나서, 그의 무덤에 가서 祭文을 읽으니, 무덤이 갈라지는 가운데 그녀는 무

덤속으로 뛰어든다.

15. 沈의랑은 이 光景을 보고 질투심에서 무덤을 각각 갈라 놓았으나 취덩굴이 뻗쳐 이로 그들의 天緣임을 알고 故鄕으로 돌아간다.

16. 梁山伯과 추양대는 玉皇上帝의 恩寵으로 무덤이 갈라지는 가운데 再生된다.

17. 梁山伯과 추양대는 다시 結婚하여 夫婦가 된다.

18. 梁山伯은 科擧 文武科에 모두 壯元함으로써 名望이 朝野에 넘친다.

19. 이 때 西達이 일어나 朝廷을 侵犯하니 兵部尙書 王均을 시켜 이를 막게 하였으나 失敗하여 그는 敵의 포로가 된다.

20. 朝廷에서는 다시 梁山伯으로 하여금 大元師를 삼고 西達을 막게 하니 梁山伯은 苦戰끝에 王均을 살리고 西達을 사로 잡아 敵을 平征한다.

21. 梁山伯은 北平侯가 되고 宮城大殿을 下賜받는다.

22. 梁山伯은 膝下에 二男一女를 두는데 이들은 모두 科擧에 壯元함으로써 富貴功名을 마음껏 누린다.

23. 梁山伯은 80高齡에 子女를 한자리에 모아 놓은 가운데 玉皇上帝의 令으로 仙女의 案內를 받아 昇天한다.

宣 室 志

祝英臺는 上虞人인 祝씨의 딸로서 거짓 男裝하고 유학을 하다가 會稽人인 梁山伯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된다. 祝英臺는 먼저 故鄕으로 돌아간지 2년만에 梁山伯이 祝英臺를 찾아 비로소 女子인줄 알게 된다. 梁山伯은 悵然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父母에게 告하여 장가들고자

하였으나 祝英臺는 이미 馬씨의 아들과 許婚하였다. 梁山伯은 후에 鄞令이 되었으나 相思病으로 죽으니 鄞城 西쪽에 묻어주었다. 祝英臺가 新行하는 길에 배가 墓所를 지나다가 暴風이 일어 갈 수가 없는지라 祝英臺는 비로소 梁山伯의 무덤임을 알고 마침내 무덤에 올라 痛哭을 하다가 땅이 갈라지는 가운데 뛰어들어 함께 묻치고 만다.

古今情史

梁山伯과 祝英臺는 모두 東晋人인데, 梁家는 會稽요 祝家는 上虞이다. 梁山伯과 祝英臺는 일찌기 함께 공부하다가 祝英臺가 먼저 故鄕으로 돌아갔다. 梁山伯은 후에 上虞를 지나다가 祝英臺를 찾아 비로소 女子인줄 알게 되고, 돌아가 父母에게 告하여 장가들고자 하였으나, 祝英臺는 이미 馬씨의 아들에게 定婚하였다. 梁山伯은 恨然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三年후에 梁山伯은 鄞令이 되었으나, 그만 相思病으로 죽는다. 거기서 그의 遺言대로 淸道山下에 묻었는데 이듬해에 祝英臺는 馬씨에게 시집을 가다가 淸道山下를 지날 때, 바람과 파도가 크게 일어 배가 더 나아가지 못하였다. 祝英臺는 梁山伯의 무덤에 이르러 失聲哀痛하다가 무덤이 홀연히 갈라지는 가운데 祝英臺는 뛰어들어 죽는다.

古今小說

일찍이 祝英臺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常州 義興人으로 어려서부터 書道에 통하여 學問을 좋아하다가 餘杭의 文風이 번성함을 듣고 유학을 가고자 한다. 이때 그의 올캐는 옛부터 男女七歲不同席不同食을 말하여 더구나 祝英臺의 16세된 過年한 나이로 이를 말린다. 그러나 祝英臺는 男裝을 하고 올캐앞에 나타나니 올케 역시 이를 分辨치 못한

다. 祝英臺가 떠날때 正히 초 여름이라 石榴꽃이 만발하니 이에 한가지를 꺾어 꽂아 놓고 하늘에 기도하기를 내가 유학하는 동안에 節介를 지키면 이 가지는 뿌리가 나 잎이 자라고 해마다 꽃이 필 것이요 만약 家門을 더럽히면 이 가지가 시들을 것이라 하고 길을 떠나 자칭 祝九舍人이라고 하였다. 우연히 蘇州人 梁山伯을 만나 그와 더불어 공부하다가 友情이 두터워 兄弟의 義를 맺고, 침식을 같이한다. 그러나 3年동안 祝英臺는 허리띠를 끌르지 않으니 梁山伯은 의심하였으나 祝英臺는 이를 잘 피해 나갔다. 3년동안 공부하여 學問이 이루어지니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祝英臺는 2개월 이내에 찾아 줄 것을 梁山伯에게 약속을 하고 떠났다. 祝英臺가 돌아갈 때도 역시 초여름이라 花臺에 꽂힌 石榴花는 꽃잎이 무성하여 올캐는 祝英臺의 節介를 믿게 되었다. 같은 마을 30里 밖 安樂府에 富者인 馬씨가 있었는데 祝英臺가 현숙하다는 것을 듣고 그 오빠에게 請婚하니 오빠는 한마디에 許婚을 하고 明年 二月에 결혼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렇지만 祝英臺는 梁山伯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가 찾아올 때 사랑을 알리려 하였다. 그러나 梁山伯은 十月이 되어서야 祝英臺를 찾아 5개월이 걸려서 겨우 祝家에 이르렀다. 그리고 祝九舍人을 찾으니 庄客은 祝九娘은 있어도 祝九舍人은 없다고 알렸다. 梁山伯은 의심하여 名啣을 傳하고 侍女를 따라 中堂에 이르렀다. 祝英臺가 紅粧翠袖로 화려하게 꾸민 것을 본 그는 크게 놀라 비로소 女子인줄 알고 自己의 어리석음을 알았다. 이윽고 梁山伯은 請婚하니 祝英臺는 馬씨와의 定婚을 이유로 사양하였다. 梁山伯은 늦게 옴을 恨하고 드디어 相思病에 걸려 죽게 되니 父母에게 安樂府 길가에다가 묻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듬해 祝英臺

가 馬씨에게 시집가다가 安樂府 길가에 이르러 홀연 狂風이 일고 天地가 캄캄하니 더 길을 갈 수가 없게 되었다. 祝英臺가 눈을 들어 보니 梁山伯이 표연이 와서 내가 賢妹를 생각한 나머지 죽어 이 땅에 묻혔으니 舊情을 잊지 않거든 가마에서 내려 나를 돌봐달라고 하였다. 祝英臺는 과연 가마에서 뛰어 내리니 홀연 땅이 갈라지는 가운데 祝英臺는 땅속으로 뛰어든다. 문사람들이 옷을 잡아 다니다 옷이 갈기 갈기 찢어져 버렸다. 頃刻에 天地는 밝아지니 갈라진 땅은 바로 梁山伯의 무덤임을 알고 이에 죽어 夫婦가 됨을 알게 되었다. 거기서 갈기 갈기 찢어진 옷은 나비가 되었는데 붉은 것은 梁山伯의 精靈이오 까만 것은 祝英臺의 精靈이라 한다.

위의 「宣室志」「古今情史」「古今小說」의 梁祝說話를 통하여 우리는 中國의 梁祝說話의 流播과정을 어렴풋하게 알 수 있으니, 즉 唐代에 발생된 梁祝說話가 明代까지도 아직 本格的으로 小說化하지 못하고, 說話의 테두리를 맴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말하지면 「宣室志」와 「古今情史」의 梁祝說話는 骨格만 갖고 있는 說話라고 하면, 「古今小說」의 것은 그 骨格구조에 보다 구체적으로 潤色된 것은 分明하지만, 骨格구조에 지니고 있는 祝英臺를 둘러싼 梁山伯과 馬씨와의 三角관계 설정은 그대로 「古今小說」에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細部에 있어서 「宣室志」의 것이 지니고 있던 梁山伯과 祝英臺의 父母의 介入은 거세되고 대신 오빠와 형수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梁山伯傳」과 中國의 梁祝說話를 비교해 보기로 하지.

梁祝說話의 骨格구조는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祝英臺를 둘러싼 梁

山伯과 馬씨와의 三角관계에서 야기되는 悲劇性에 있다. 「梁山伯傳」도 오늘날 中國의 梁祝說話의 翻案物이라고 논의되고 있을 만큼 추양대(祝英臺)를 둘러싼 梁山伯과 沈生과의 三角관계에서 야기되는 비극성을 지니고 있다.

中國의 梁祝說話와 「梁山伯傳」 사이에 相異한 장면은 前揭한 「梁山伯傳」의 구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梁祝說話를 한국 古小說의 구조에 맞추어 擴大하여 序頭面에 時代背景·家系·主人公들의 非凡性등을 삽입하고 나서, 展開面에서 梁山伯과 祝英臺가 同學하는 場所로서 雲香寺의 설치, 梁山伯이 男裝한 祝英臺를 의심하여 所避·雪膚의 촉각등으로 女性을 확인하는 장면, 사랑의 告白, 또는 下半部에 삽입된 추양대의 發文, 顯夢, 沈生의 심술, 終結部에 다시 기나긴 再生설화의 삽입등이 創作小說이라고 할만큼 많은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그러나 兩者사이에 현격하게 다른 點은 梁山伯이 祝英臺의 女身을 확인하는 時期와, 中國의 梁祝說話에 전연 없는 기나긴 再生설화가 「梁山伯傳」에 삽입된 것등이다.

첫째, 梁山伯이 男裝한 祝英臺를 女子로 확인하는 시기에 있어서, 中國의 梁祝說話는 모두 梁山伯과 祝英臺가 同學하는 동안에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修業후 梁山伯이 祝英臺의 집을 찾아가 비로소 확인한다.

祝先歸二年 山伯訪之 方知其爲女子〈宣室志〉

祝先歸 梁後過上虞 尋訪之 始知爲女〈古今情史〉

山伯直到十月 方纔動身 過了六個月了 到得祝家庄 問祝九舍人時 庄客說道 本庄只有祝九娘 並沒有祝九舍人 山伯心疑傳了名刺進去 只見丫鬟出來 請梁兄到中堂相見 山伯走進中堂 那祝英臺紅粧翠袖 別是一般粧束了 山伯大驚 方知假男扮男

子〈古今小說〉

梁山伯은 위와 같이, 祝英臺가 女子인줄 확인하고 나서, 이룰 수 없는 사랑의 苦惱으로 相思病에 걸려 드디어 비극적 結末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該面이야말로 분명 梁祝說話로 하여금 비극적 轉換을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契機가 된다. 그러나 中國의 梁祝說話에서 梁山伯이 祝英臺와 함께 三年을 同居하면서도 그녀가 女子인줄 확인하지 못하다가 내종에 梁山伯이 祝英臺를 찾아가 비로소 확인한 후, 이룰 수 없는 사랑에 苦惱하여 相思病으로 비극적 結末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은 不自然스러워서 아무래도 實感이 안간다. 오히려 희극적 결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小說로서는 더욱 成功스런 手法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梁山伯傳」은 梁山伯이 祝英臺를 女性으로 확인하는 시기에 있어서, 梁山伯이 同修業을 마친 후, 祝英臺를 찾아가 후에 女性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梁山伯이 祝英臺와의 同學과정에서 이를 확인한다. 즉 梁山伯은 男裝한 祝英臺가 하도 이상해서 이를 의심하여 처음은 所避의 방법, 내종에는 잠지는 祝英臺의 雪膚를 만져보고 비로소 그녀가 女性인줄 확인한다. 이후 梁山伯은 祝英臺에게 사랑을 告白하고 祝英臺는 또한 後日을 기약하고 서로 헤어졌다가 梁山伯이 祝英臺를 찾아오니 그녀는 이미 沈生과 定婚한 것을 알고 이로 相思病에 걸려 비극적 결말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梁山伯이 相思病에 걸리는 이유가 매우 順理的이다.

該面에 있어선 분명히 「梁山伯傳」의 作者가 中國의 梁祝說話를 대본으로 하면서도 梁祝說話가 지닌 前揭한 不合理한 點을 알고 이를 順理的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改編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再生설화의 문제이다. 中國의 梁祝說話은 梁山伯과 祝英臺가 함께 무덤에서 共死함으로써 비극적 결말을 가져오고, 이로써 스토리는 終結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言及한 바 있다. 그러나 「梁山伯傳」은 梁山伯, 祝英臺가 무덤에서 共死하여 비극적 결말로 中結되고 나서 다시 이에 再生설화를 添補하여 梁山伯과 祝英臺를 되살려 韓國的 小說의 體裁에 맞추어 여기에 出將入相 등 軍談를 삽입하여 happy Ending으로 終結시키고 있다. 즉,

> 문득 무덤이 일시에 갈라지며 무덤속으로서 오색채운이 이러나며 이 두 사람의 신체 저절로 움직여 이러나며 무지개 다리를 좇차 한곳에 모듸여 서로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생이 추씨의 손을 붓들고 왈 오날 우리 양인의 맛나미 엇지 텬정이 아니리오 하고 서로 잇그러 평강으로 향하여 가니라.[16]

위 引文에서와 같이 五色彩雲의 무지개가 이는 가운데 梁山伯과 祝英臺는 再生하여 두 사람은 함께 梁山伯의 故鄕 平康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덧붙여 둘 일은 梁山伯은 또한 再生되기에 앞서 梁山伯과 祝英臺의 魂靈이 方文山에 이르러 太乙仙人을 만나 그의 案內로 玉京에 갔다가 玉京上帝의 令으로 地藏王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기나긴 還魂說話엔 다분히 「九雲夢」과 「王郎返魂傳」의 영향을 고려의 범위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와 같이 梁山伯과 祝英臺는 再生되어 다시 그들의 老父母를 만나고, 正式 結婚을 하고, 여기에 科擧에 壯元하는 과정, 또 梁山伯은

16) 『梁山伯傳』〈世昌書館刊〉 p. 26

西達이 쳐들어와 朝廷이 危機에 놓였을 때 出將하여 敵을 물리친다는 軍談이 삽입되고, 乃終에는 梁祝夫婦가 子孫이 번성하는 가운데 天壽를 다하여 昇天하는 등 상투적인 한국 古小說의 구성이 삽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梁山伯傳」은 梁山伯과 祝英臺가 비극적 결말로 일단 끝나는과정은 上篇에 해당되고, 대신 여기에 한국 小說的 再生譚은 下篇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梁山伯傳」의 作者가 梁祝說話를 토대로 일단 비극적 결말로 끝내고 나서, 다시 한국적 再生譚을 삽입시킨 意圖는, 한국의 讀者를 의식하여 梁祝說話를 한국적으로 改作한 것이라고 推測된다.

위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梁山伯傳」의 作者는 中國의 梁祝說話를 토대로 하여 이를 小說化하는 과정에서 많은 部分的인 變改를 加하면서도 梁祝說話의 비극성을 合理化하기 위하여 그 原型이 갖고 있는 祝英臺의 本體(女子) 確認의 시기를 뒤 바꾸어 놓음과 동시에, 여기에 再生譚을 삽입하여 한국적 小說로 再構해 놓은 것은 오늘날 梁祝說話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비극성을 除去시켰다는 論者[17]가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적 비극성[18]을 가져오기 위하여 이를 한국적으로 再構해 놓았다는 것

---

17) 여기에 한국적 悲劇性이란 말을 붙여본 것은 본래 엄밀한 뜻에서 보면, 한국 古小說에는 비극소설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雲英傳」을 한국의 唯一한 비극 소설로 규정해 온데 대하여 拙稿 『雲英傳의 問題 〈『高大文化』(11)〉에서 비극성을 否定한 바 있다. 그러나 中國小說은 일찍부터 唐代 「傳奇」부터 이미 한국과 같은 기계적인 happy Ending이 제거되어 있으나 한국 古小說은 朝鮮社會의 지배적인 思想이었던 儒家의 懲戒主義에 의해 결국 비극적 小說도 내종에는 HappyEnding으로 끝고 가고 있다.

18) 金起東 『韓國古代小說槪論』 p. 241

은 本「梁山伯傳」을 오늘날까지 中國의 梁祝說話의 飜案小說로 보는 것과는 달리, 보다 獨創性을 지닌 創作小說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높이 評價를 받아야 할 것이다.

Ⅲ. 梁山伯傳과 巫歌

현재 한국에 梁祝說話를 바탕으로 한 巫歌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咸鏡道의「문굿」[19]이요, 또 하나는「치원대 양산복」[20]이다.

첫째, 巫歌「문굿」의 플러트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양산백과 추양대(祝英臺)는 8살 때, 은하사 절에 가서 함께 공부를 한다.
2. 양산백 16살, 추양대 15살 때 한강에 가서 목욕을 하다가 血水가 떠내려 오는 것을 보고 산백은 양대가 여자인 줄 안다.
3. 산백은 양대에게 請婚하나, 양대는 父母에게 물어보아야 한다고 집으로 간다.
4. 추양대는 父母에게 양산백의 청혼을 말하였으나 거절당한다.
5. 양산백은 추양대가 다른 家門에 許婚한 사실을 알고 놀라 죽는다.
6. 추양대는 시집가는 도중, 양산백의 墓 앞에서 금봉채로 墓를 치고 갈라진 墓 속으로 뛰어든다.
7. 墓는 다시 합쳐지고 추양대의 나삼자락이 밖으로 나와 떼어내니 나비가 된다.

---

19) 張德順 外三人『口碑文學槪說』〈一潮閣刊 1977〉 p. 133

20) 金泰坤『韓國巫歌集』(Ⅲ)〈圓光大 民族文化硏究所 1978〉 p. 98~101

다음 「치원대 양산복」의 풀러트는 다음과 같다.

1. 金씨 夫人과 李氏夫人이 빨래를 하는데 배(梨)가 떠내려와 이를 반반식 쪼개 갖는다.
2. 金씨夫人은 양산복(梁山伯)을 낳고 李씨夫人은 치원대(祝英臺)를 낳는다.
4. 치원대는 남장을 하고 금상절(寺)에서 양산복과 함께 공부를 한다.
4. 양산복은 치원대가 여지인 것 같아 海水浴·所避등 방법을 시험하여 보았으나, 이를 확인치 못하다가 동침하는 중, 젓가슴을 만져보고 비로소 확인한다.
5. 양산복은 공부를 도중에 마치고 돌아와 相思病에 걸린다.
6. 양산복은 치원대의 新行길에 묻어 줄 것을 부탁하고 죽는다.
7. 치원대는 新行길에 양산복의 墓를 金鳳叙로 치고, 갈라진 墓속으로 들어간다.
8. 양산복과 치원대는 쌍무지개가 이는 가운데 昇天한다.

위의 두 巫歌는 모두 咸鏡道 地方에서 유파되는 巫歌이다. 즉 「문굿」은 咸鏡道 巫歌라고 前揭한 바 있고, 「양산복과치원대」는 그 解題에서 咸鏡道 巫女를 통해 蒐集된 것으로 되어 있다. 거기서 위의 두 巫歌는 또한 같은 系統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것은 兩者가 部分的인 面에서는 相異한 것이 出現한다 하드라도 「문굿」의 梁山伯과 祝英臺가 절에서 함께 同學을 하고, 또 祝英臺가 梁山伯墓에서 金鳳叙로 두다리는 場面 등은 그대로 「양산복과 치원대」에도 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위의 巫歌는 어떻게 形成되었을까. 즉 中國의 梁祝說話의 영향을 받고 成立되었을까. 아니면 한국의 「梁山伯傳」의 영향을 입고 成

立되었을까. 于先 이를 밝히기 위해 中國의 梁祝說話와 한국의 「梁山伯傳」의 대체적인 플러트를 다시 적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前揭한 바와 같이 梁祝說話와 「梁山伯傳」의 중요한 구성적 差異는 梁山伯이 祝英臺의 女子의 正體를 확인하는 시기에 있다. 즉 梁祝說話는 同學후 女子의 正體를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梁山伯傳」은 이것이 同學중에 확인된다.

이들 外에 위의 巫歌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梁祝說話과 「梁山伯傳과의 차이점을 들면, 梁山伯과 祝英臺가 同學하는 場所에 있어서 梁祝說話에는 場所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英臺 上虞祝氏女 僞爲男裝遊學 與會稽梁山伯者 同肄業〈宣室志〉

梁山伯祝英臺 皆東晋人 梁家會稽 祝家上虞 嘗同學〈古今情史〉

梁山伯與他同館讀書 甚相愛重 結爲兄弟 日則同食 夜則同臥 如此三年〈古今小說〉

그러나 「梁山伯傳」엔

양생이 이 말 듯고 대희하야 왈 소생은 남양짜 양상서의 독자 산백이러니 맛참 운향사에 공부코저 오더니 천행으로 존형을 맛나며 정의 자연 구면갓트니 아지못게라 우리 연분이 지중하야만 난쾌라[21]

에서와 같이 同學場所가 雲香寺로 구체화되어 있다.

이들을 더욱 구체화 하면, 前者 祝英臺의 正體 女子의 확인시기에 있어서, 中國의 梁祝說話는 막연히 祝英臺가 學業을 마쳐 歸鄕한 후에 梁山伯이 친구로서 祝英臺를 찾아가 비로소 女子인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梁山伯傳」은 同學중 所避등 方法을 쓰면서 乃終에는 잠자

21) 『刊梁山伯』 p. 5

는 祝英臺의 雪膚를 만져보고 비로소 女子로 확인된다는 것은 이미 前項에서 擧論한 바 있다. 이런 方法은 巫歌에서 꼭같이 適用된다. 즉

양생왈 내 이 담밧게서 소피하야 이 안으로 드려보내리니 그대도 능히 그리할소냐 추생왈 이 무엇이 어려우리오 형은 몬저 행하리라 하거날 생이 즉시 담밧게서 오줌을 누어 담안으로 드려보내거날 추소저 심중에 민망하나 본적이 탄로할가하야 즉시 나아와 쥼치에 불쇼지를 싸혀 담안으로 오줌을 드려 보내며 대소왈 대장뷔 엇지 이만 일을 못하리오 하고 섯더니……소저 잠을 깁히 들거날 생이 가마니 가삼을 열고 만저본즉 설부옥골이 완연한 녀재 분명한지라 불승대희하야 마음을 안정치 못하야 내심에 생각하니 제 임의 녀재일진대 가히 다문을 유의치 못하려니와……[22]

아무래도 봐도 여자 몸이 분명한데 알 수는 전연 없구 해서 여름이 당진해 오니까 야 치원대야 우리 해수욕을 가자 해수욕 물이 들어서서 해수욕을 하는데 알 수가 없읍니다 먼저 우이서 목간하다 후이 내려와서 치원대야 언저는 우리 집으로 가자 거어 버들잎을 때에쿠 휘파람소리 휘이 불면서리 어찌 처량하게 부는지 그 소리 듣다 나니 어디지간 나아서 좃 입언지 알 수 없읍니다 그날 그 시부터는 양산복으는 자지 않고서리 치원대 거둥만 봅니다. 야 치원대야 우리여 이 둑담으루 가지구 오줌 싸서 넘글내기를 할까 하지요 하구보니 그 여자 오줌이가 남자 오줌보다 더 세게 나가구 알 수 없읍니다. 오날 나조부터는 사흘밤을 꼬박 밝혀서 공부를 하자 그렇게 해서 뉘기 먼저 자버리는가 보자 사흘 밤을 꼽박 앉아서 자부니 거어 양산부이는 여자를 거둥 보자구 자갑으니 어로 드르니 자부릴 텩 있어 거어 여자는 채우지 못해서 참잠을 들었읍니다 참잠을 들구 보니 참잠을 든 담이요 가슴이다 손을 여으니까디 여자가

22) 上同 p. p. 6~7

분명합니다.[23]

다음은 앞에서 言及한대로 中國의 梁祝說話엔 同學하는 장소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梁山伯傳」과 巫歌엔 절(寺)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한살 두살 먹구보니 글 공부를 가는 길입니다 동무라 같이 가옵니다 산이 산이여 금상절로 공부차례로 떠났으니[24]

위의 「치원대가 양산복」 외에 「문굿」에도 「은하사」로 되어 있다함은 前揭한 바 있다.

또 巫歌의 末尾에 祝英臺가 「梁山伯傳」의 墓에서 함께 묻치는 場面에, 祝英臺의 郎君이 그녀가 墓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치마자락을 잡아다니는 場面이 出現한다.

그때 글누 뛰여서 들어가니 말부담이 앉았던 신랑은 내려서 그 치마를 쥐어서 잡아대니니 그 재물 먹인 치마가 무슨 영기 있겠읍니까 불부울 날나나 한판이 되가 한 합이 되서 들어 맞아 그때 들구 보니 어디 가서 채겠읍니까 그러구 조금 있으니까 쌍무지개 져서 둘이 하늘루 승천하구 가는지[25]

該面은 「梁山伯傳」의

문득 일진광풍이 분상으로 좇차 이러나며 무지개 빗최더니 무덤이 갈러지거날 추시 대회하야 즉시 홍상을 거두치 안고 몸을 날너 분묘중에 뛰어드니 일행이

23) 金泰坤 『韓國巫集』(Ⅲ) p. p. 98~99
24) 金泰坤 同上書 p. 98
25) 上同書 p. p. 100~101

대경하야 급히 소저들 잡아 달인즉 치마자락이 써지고 무덤은 전갓치 어우라니[26]

의 場面과 相通된다. 즉 치마자락이 등장할 뿐 아니라 무지개가 介入된 것도 一致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例로 들은 巫歌의, 梁山伯의 祝英臺의 正體(女子)를 확인하는 시기 및 과정, 그리고 梁山伯과 祝英臺의 同學하는 장소가 절(寺)로 구체화된 것, 또 祝英臺가 新行길에 梁山伯의 墓에 함께 묻히는 장면에 치마자락과 무지개등이 出現하는 것 등은 巫歌가 「梁山伯傳」의 同系列임을 알려 주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巫歌가 「梁山伯傳」에서 파생되었느냐, 아니면 巫歌에서 「梁山伯傳」이 파생되었느냐가 문제이다.

앞에서 言及한 바 있듯, 天台山人은 「梁山伯傳」의 成立年代를 朝鮮英正祖로 잡았다. 筆者도 이에 대한 代案이 없으므로 天台山人의 說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도 아울러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오늘날 「梁山伯傳」의 텍스트는 다른 古小說에 비해 훨씬 적다. 즉 現存한 「梁山伯傳」의 텍스트는 京板本 및 活字本 뿐이요 筆寫本은 全無하다. 그것도 京板과 活字本도 內容 및 字字句句가 꼭같아 異本이라기 보다 同一本임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活字本도 亦是 京板本을 찍어낸 것을 생각하면 京板本이 「梁山伯傳」으로선 唯一本인 셈이다.

現存한 京板本을 보면, 中國의 梁祝說話의 原型에서 많이 變貌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梁山伯傳」의 男主人公 「梁山伯」의 명칭은 그대

26) 『梁山伯傳』 p. p. 23~24

로 存續하지만, 女主人公 祝英臺는 (추양대)로 訛音된 것으로 보아 오늘날의 「梁山伯傳」은 梁祝說話의 原型에서 이루어진 「梁山伯傳」에서 여러번 傳寫과정을 거친 것으로 推測된다. 그러므로 現存한 「梁山伯傳」의 成立은 아무래도 英正祖 이후로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오늘날 存하는 두편의 巫歌에서 女主人公의 명칭이 하나는 '추양대'(문굿), 또 하나는 '치원대'(치원대와 양산복)로 되어 있어서 이들도 梁祝說話의 原型과는 달리 現存한 「梁山伯傳」의 명칭과 같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두편의 巫歌가 中國의 梁祝說話의 계통이 아니라, 한국의 「梁山伯傳」의 계통임을 확인해 주는 것임인 同時에, 또한 巫歌가 「梁山伯傳」의 영향을 입어 成立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본다.

巫歌는 無識한 巫女에 의해 불리워지는 것이므로, 巫女는 中國小說을 原典으로 받아들일 能力밖의 사람이요, 小說作者는 中國小說을 原典으로 받아들일 能力者이므로, 結局 「梁山伯傳」이 巫歌의 영향으로 成立되었다기 보다는 아무래도 「梁山伯傳」의 영향을 입어 巫歌가 成立되었다고 보는 것이 合理的인 推理라고 생각된다.

위에서 言及한 巫歌 外에도 天定配匹인 柳文成과 헤여진후, 父命으로 願에도 없는 達目의 아들과 成禮하고, 이로 목매어 죽은 李小姐가 무덤에서 再生되어 사랑의 對象인 柳文成과 再合하여 Happy Fnding으로 結末짓는 「柳文成傳」이나, 또는 繼母 鄭씨의 奸計로 죽은 仁香이 定婚者 柳成允을 맞아 무덤에서 再生되어 그와 再合한다는 「金仁香傳」등은 「梁山伯傳」의 구성과 恰似한 것으로 모아, 이들도 「梁山伯傳」의 영향으로 成立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該論에서는 다만 問題

의 提起로 끝나고자 한다.

結　語

위에서 中國의 梁祝說話의 流播과정을 소개하였고, 「梁山伯傳과 梁祝說話」에서 中國의 많은 梁祝說話중, 梁祝說話의 全內容이 傳하는 「宣室志」·「古今情史」·「古今小說」 등 三者의 共通性, 즉 梁祝說話가 지나는 悲劇性을 中心으로 祝英臺의 正體(女子)를 확인하는 時期가 中國의 梁祝說話엔 梁山伯과 祝英臺의 同學 이후로 되어 있으나, 「梁山伯傳」은 小說의 비극성을 보다 現實化하기 위하여 그 正體의 확인시기가 梁山伯과 祝英臺가 同學하는 동안에 확인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梁山伯傳」이 中國의 梁祝說話의 영향을 입어 成立되었다는 것은 兩者가 갖고 있는 密着된 相關性으로 보아 考證의 前提 없이도 뚜렷한 事實로 돌릴 수 있지만, 오늘날 中國의 그 많은 梁祝說話가 整理되어 있지 않은 이때, 어느 한편의 梁祝說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밝히기란 不可能한 일이므로 不得已 「梁山伯傳」은 中國의 梁祝說話의 全內容을 지니고 있는 「宣室志」「古今情史」「古今小說」 등 三者를 텍스트로 하여 이와 比較하여 中國의 梁祝說話의 특색을 밝히고, 이를 中心으로 「梁山伯傳」의 한국적 變貌를 밝히는데 그쳤다.

다시 「梁山伯傳」은 現存한 巫歌, 「문굿」과 「치원대 양산복」이 中國의 梁祝說話에서 벗어난 것을 前提로 하여, 그것은 이들 巫歌와 同業임을 밝히고 나서, 아울러 巫歌 作者의 下流身分에다 중점을 두어 결국 이들 巫歌는 「梁山伯傳」의 영향을 받고 成立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거기서 「梁山伯傳」은 中國의 梁祝說話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成立됨과 同時에, 거기에 비극성을 한국적으로 合理化시키기 위하여 아울러 再生설화를 삽입시켜 한국 古小說로 再構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梁山伯傳」을 飜案小說 云云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의 創作小說의 領域으로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梁山伯傳」은 다시 이후 「梁山伯傳」 類의 巫歌를 成立시켰다는 것은, 「梁山伯傳」이 中國의 梁祝說話와 한국의 巫歌에 있어서 中介的 역할을 하였다는데 또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 中國의 梁祝說話가 보다 많이 蒐集된다면, 本論의 論旨도 部分的으로 補完되어야 하리라고 보지만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梁山伯傳」의 한국적 유파과정에 있어서 中國의 梁祝說話와 한국의 巫歌의 中介的 역할을 하였다는 本論의 마무리는 變動이 없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馮夢龍 『古今小說』〈臺灣 世界書局 刊 民國47〉
『筆記小說大觀』〈臺灣 新興書局刊〉
路 工 『梁祝故事說唱集』〈上海出版公司 1955〉
鄧綏寧 『中國戲劇史』
天台山人 『朝鮮小說史』〈增補版〉
朴晟義 『韓國古代小說論史』〈에그린 出版社刊 1978〉
金起東 『韓國古代小說槪論』
金泰坤 『韓國巫歌集』(一) 〈圓光大 民俗學硏究所 刊〉
張德順 外三人 『口碑文學槪說』〈一潮閣 刊 1977〉
李明九 『李朝小說의 比較文學的 考察』〈大東文化」(5)成大大東文化硏究所刊 1968
『梁山伯傳』〈世昌書館刊〉